

국내 시설원예산업의 발전방향

이 동 회
농수산물유통공사

GATT의 BOP조항 및 UP협상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연차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도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을 축으로 하는 신농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기술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발전속도가 빠른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관련기관에서 참여한 심포지엄 개최는 시의적절한 모임이라고 본다.

수입개방이라는 명제아래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방어수단과 함께 공격도 병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이라는 공격수단으로 수입을 막는데 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것이 곧 시설원예산업의 육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출농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의 경쟁상품을 물리치고 얼마나 해외시장을 점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것은 품질과 가격에서 이겨야 한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 다수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설원예산업의 육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제 도입단계에 있는 이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거론한 바와 같이 산,학,관,연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첨단시설이 국내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운영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술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한 농민지도가 이루어질때 고품질 다수확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된 고품질의 상품을 제대로 인정받아 제값을 받고 처리할 수 있을때 첨단시설원예산업은 지속되고 발전될 것이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기술농업을 했다해도 목적하는 바의 품질과 수량이 안 나온다면 더이상의 활용이 안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고품질 다수확 생산에 성공 했다해도 품질에 대한 인정을 못받고 제값을 받지 못할때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술농업도 중단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품질을 인정받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라는 물꼬를 통해 이를 처리해줌으로써 첨단시설원예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와 견인차 역할을 병행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해 들어올 많은 수입농산물 저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충북 음성에 3,000평의 첨단기술유리온실을 지어 수출시범 기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공사의 기능인 농산물 수출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외경쟁력이 있고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차례가 아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수출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안되니까 안정적 공급기반 형성이 안되는 반면, 고품질 규격상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이 없으니까 수출시장 개발이 안되는 악순환이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 생산단지를 피하게 되었고, 고품질 규격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형성이 첨단시설 유리온실 건설이었던 것이다. 이 첨단시설은 아직은 농민에게 직접 권유하기에는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일종의 첨단시설 원예농업의 실증시험을 병행한 수출시범 기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 유리온실을 대농민 교육장으로 개방해 일반 농가에 재배기술을 보급 전파하는 한편 수출유망품목 재배단지와의 연계, 공동시험재배 실시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의 전산화로 운영능률 향상은 물론 운영자료의 체계적 분석정리로 각종 운영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유리온실 참여 희망농가의 시행착오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을 종합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시설원예산업은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원예산업으로 보다많은 성력재배, 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겨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키 위해서는 수출농업과 연결시키고 이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상호 공개, 평가, 보완에 협조하여 우리에게 맞는 시설과 기술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